

대학생의 음주관련요인, 문제음주, 폭음과 음주성행동

김민경(남서울대 교수)

본 연구의 목적은 대학생의 문제음주, 폭음과 음주성행동의 일반적 경향과 이들 변인의 관계를 살펴보고 음주성행동에 미치는 문제음주와 폭음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한다. 본 연구대상은 4년제 대학생 230명으로 구조화된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였다. 청소년의 문제음주, 폭음과 음주성행동을 분석하기 위해 기술통계와 평균, 상관관계를 위한 Pearson의 적률상관분석, 다중회귀분석 등을 사용하였으며 이들 자료는 PASW 18.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본연구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변인들의 일반적 경향을 살펴보면 일탈경험과 허용적성태도, 내적통제가 보통수준보다 약간 높게 나타났으며 다른 변인들은 음주와 관련된 변인으로 보통수준보다 낮게 나타났다. 둘째, 문제음주는 과거 일탈경험, 부모문제음주, 친구음주압력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으며 내적통제와는 유의한 부적 상관이 나타났다. 폭음은 일탈경험, 내적통제, 부모문제음주, 문제음주와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음주성행동은 일탈경험, 내적통제, 허용적 성태도, 부모문제음주, 문제음주, 폭음과 유의한 정적 상관이 나타났다. 셋째, 관련변인들이 음주성행동에 미치는 상대적 영향력을 파악한 결과 1단계에서는 음주성행동에 일탈경험, 내적통제, 허용적 성태도, 부모문제음주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21%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내적통제가 낮을수록, 허용적 성태도를 가질수록, 부모가 문제음주를 할수록 음주성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2단계에서는 음주성행동에 대학생의 문제음주와 성행동을 첨가하여 분석한 결과 일탈경험, 내적통제, 허용적 성태도, 부모문제음주, 문제음주, 폭음 등이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전체 변량의 36%를 설명하고 있다. 즉 일탈경험이 많을수록, 내적통제가 낮을수록, 허용적 성태도를 가질수록, 부모가 문제음주를 할수록, 대학생자신의 문제음주와 폭음이 많을수록 음주성행동이 높게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허용적성태도가 가장 높은 영향력을 보여 허용적 성태도가 성행동으로 이어지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따라서 올바른 성행동을 위해서는 바람직한 성태도의 확립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함을 알 수 있고 이를 실천하는 프로그램이 조기교육과정에서부터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부모문제음주는 음주성행동에 일관되게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어 부모의 음주에 대한 교육이 가정에서 중요한 영향을 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음주성행동이 음주를 통해 나타나는 것을 감안할 때 부모의 음주습관이 자녀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어 올바른 부모의 음주습관형성이 필요하다. 다섯째, 일탈경험과 내적통제가 각각 음주성행동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데 대학생자신의 개인적 특성이 음주성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아 각자 자신을 통제할 수 있는 의지가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음주성행동은 문제음주와 폭음이 각각 유사하게 높은 영향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볼 때 음주에 대한 적절한 횡수와 양을 고려한 수위조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음주에 대해 비교적 관대한 잣대가 주어지는 한국사회가 음주에 대한 엄격한 기준이 마련되고 제시될 필요가 있겠다.